

지역 소식통

부안군, 기후 취약계층
이용시설 차열페인트 시공

부안군은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의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어린이집, 게이트볼장 등 기후 취약계층 이용시설 15곳에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차열 페인트를 시공하는 쿨루프(Cool Roof) 지원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쿨루프(Cool Roof) 지원사업은 태양광 반사 및 열 반사 효과가 있는 하얀색 페인트를 지붕과 벽에 시공하는 것으로, 한여름 옥상 온도를 현저히 낮추고 옥상에 열기가 축적되는 것을 막아 폭염 및 열섬, 열대야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옥상 온도를 낮춤으로써 실내 온도를 5°C 낮춰 여름철 건물 내부의 냉방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고 CO2 배출량을 줄여 대기오염 개선과 지구온난화를 완화하는 장점도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농촌지역
소방 인프라 강화

정읍시가 농촌마을의 안전을 위해 소화전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서는 소화전이 미설치돼 소방용수 부족에 따른 화재진압의 취약함을 해결하기 위해 산림인접 지역과 농촌마을에 신규 소화전을 설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형 산불 확산 방지, 물론 농촌마을 화재 발생 시 빠른 대응으로 시민들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현재 702개소의 공공 소화전이 설치돼 있고, 올해는 총 3억원을 투입해 5월부터 미설치 지역 115개소 중 45개소에 공공 소화전을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5년 이내에 모든 농촌마을에 소화전 설치를 완료하고 기존 소화전 중 고장·파손된 소화전도 즉각 보수·교체해 재난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 소화전 설치 확대를 통해 농촌마을의 화재 대응력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복분자 무병묘 분양

고창군복분자연합회에 4000주 무상분양... 현장실증 후 매년 2만주 분양키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자체 조직 배양기술과 시설 양액재배를 통해 육성된 복분자 무병묘 4000주를 고창군 복분자연합회(회장 박대수)에 현장실증용으로 무상분양한다.

또한 내년부터 해마다 2만주씩을 공급해 복분자 도시의 명성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고창복분자는 1997년 18ha에서 10년만에 80배 이상 급증했으며, 주류와 음료산업으로 확산되어 지역

특작작물의 활성화에 주도했다.

그러나 2010년도에 접어들며 여름철 폭염과 폭우, 태풍 및 겨울철 한파 등의 이상기상으로 인해 감소하기 시작해 2021년 248ha까지 줄면서 위기를 맞았다. 민선 8기 고창군은 복분자 살리기의 일환으로 무병묘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2022년부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조직배양기술을 이전받아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조직배양실에서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시설 양액재배를 통해 증식된 묘를 농가에 공급하기로 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도 29일 자체생산 복분자 무병묘 첫 분양현장을 찾아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무병묘 공급확대와 휴과 복분자를 살리는 미생물농법 확산, 복분자 수매 안정자금 지원 등 더욱 적극적으로 복분자 안정생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우체국, 전국 1위 대상 · 으뜸직원상 수상

부안형e-커머스사업 상품 매출액 43억원 · 우정사업 동반성장 공로

부안우체국(국장 임선옥)이 우정사업본부 주관 2023년도 우편사업 종합평가에서 전국 1위 대상 수상과 함께

우듬직원상(이철성 과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부안우체국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부안군과 공동으로 우체국소품몰에 지역상품을 판매하는 부안형 e-커머스 사업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할 청년·노인 상품 17억원을 포함한 지역상품 누적 매출액 43억원을 달성하는 등 공적역할 수행 및 우정사업발전에 기여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러한 공로들을 크게 인정하여 2023년도 우편사업 종합평가에서 부안우체국을 전국 1위 대상과 함께 동 사업을 수행한 부안우체국 이철성 과장에게 으뜸직원상(장관상)을 수여했다.

임선옥 부안우체국장은 전국 1위 대상수상 소감으로 "이 사업을 일선에서 수행해온 이철성과장의 남다른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리며, 부안형 e-커머스 협력사업이 더 성장하길 바란다"고 하였고, 으뜸직원상을 수상한 이철성 과장은 "공무원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며 그간 일선에서 함께 해온 부안군 이상원팀장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역상품 판매개척으로 부안군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우체국이 우정사업본부 주관 2023년도 우편사업 종합평가에서 전국 1위 대상 수상과 함께 으뜸직원상(이철성 과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정읍시, 기업민원 신속처리단 운영

기업관련 인·허가 등 신속 지원

정읍시가 기업하기 좋은 정읍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민원 신속처리단을 구성·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업민원 신속처리단은 미래산업과 등 9개 부서 9개 팀 18명이 투자기업과 민원 기업의 공장 입주 계약 체결, 공장등록 및 입주 계약 변경 등 기업 관련 인·허가 및 기타 기업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지원한다. 그간 공장등록 인허가 관련 민원은

접수 후 보완이 이뤄졌고, 일부 보완 사항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기업은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시는 사전 컨설팅과 신속한 보완 이행, 조건부 승인 등의 절차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 민원 신속처리단은 1기업 1공무원 전담제와 더불어 기업하기 좋은 정읍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기업 맞춤형 신속 민원 해결로, 시·기업간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정읍에 투자하는 기업이 안

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연 4회(분기별 1회)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에로의 즉각적인 해소와 각종 사업의 안내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정읍,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5월 31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압류 등 강력 처분... 생계 어려운 체납자는 분할 납부 조치

정읍시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지방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특별 징수 활동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예금과 급여, 카드 매출 채권 등 채권압류를 적극 추진해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압류 후 시간이 경과 한 장기체납자 등에 대해서도 압류 실익을 분석해 적극적으로 공매를 추진하고 명단공개 사전 예고 등 행정제재를 병행할 예정이다.

다만,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보해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체납액 납부안내문과 모바일 알림 문자를 활용해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 차량 영치기동함을 편성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힘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는 유연하게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고액·상습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대한민국 대표축제 박람회 참가

고창군이 지난 26~28일(3일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대표축제 박람회'에 참가해 관광 홍보관을 운영했다.

이번 박람회는 축제를 하나의 독립된 산업으로 발전시켜 축제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의 박람회다.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발굴하고 대외적인 홍보를 통해 축제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열렸다.

고창군은 이번 박람회에서 '제21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와 '제51회 고창 모양성제' 등의 홍보를 위해 리플릿 배부, 홍보 동영상 상영, 다채로운 이벤트와 고창 관광 홍보로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번 박람회는 전국 지자체와 관광 관련 기업 약 200여 곳이 참가해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한눈에 볼 수 있었

다. 고창군은 2024년도 국내외 관광객 1,300만명 유치를 목표로 관광산업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고창 고인돌 유적,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고창 갯벌을 비롯 2023~2024 한국관광100선에 선정된 운곡탐사르 습지 등 다채로운 고창만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사업을 추진해 세계유산도시 고창을 알렸다.

고창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국내외 관광이 재개되는 올해 세계적 다양한 축제도 고창이 가진 우수한 생태관광 자원 등으로 변화하는 관광객들의 수요에 대응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 환경을 조성하여 역사문화 관광도시 고창을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 공공배달앱 1주년 기념 5월 가정의 달 고객감사 이벤트

정읍시가 공공배달앱 위메프오의 출시 1주년을 맞아 고객 감사 이벤트를 시행한다.

먼저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5월 4일부터 6일까지 연휴기간 동안 1일 200명씩 총 600명에게 3000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또한 5월 1일부터 20일까지 공공배달앱 내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참여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캐리터 인형(오사장, 포미)을 선물로 지급한다. 이와 함께 5월 한달동안 배달료 최

대 2000원 할인 쿠폰 행사도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가정의 달 이벤트를 통해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 8기 핵심 공약 사업인 정읍형 공공배달앱은 지난해 5월 1일 출시한 이후 지난 3월 말까지 배달 주문 11만 5000건, 매출 31억원을 돌파하는 등 시민들의 큰 사랑을 얻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